

## 전직 광주시장 아들 땅 용도변경 '토호세력 카르텔' 의혹

광주시-광산구, 변경 과정서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 절차 무시  
상업시설 면적 6.3% 기준 넘어선 7.6%로 ... "심의 자체가 문제"

**단독 보도** 전직 광주시장 아들 사업체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소촌농공단지 용도변경(분보 6월 26일자 1면)과 관련, 광주시와 광산구가 기본적인 행정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최종 승인·고시까지 해준 것으로 드러나는 등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용도변경 과정에서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개발 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 등 필수 절차조차 밟지 않았으며, 지원(상업)시설 면적까지 초과했다는 데도 이를 묵살하고 용도변경을 승인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당국과 정치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최근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이례적으로 논평을 통해 '토호 세력 카르텔 연루' 의혹 등을 제기한 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 내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약탈적인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과감하게 맞서 싸워달라"고 당부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광주시와 광산구 등에 따르면 광산구 소촌농공단지 내에 제조시설 용지 4500㎡ 소유자인 전직 광주시장 아들 A씨는 2021년 12월 해당 부지에 스마트 정비 공장을 짓겠다고, "지원시설" 용지로 바뀐다고 광산구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했다. 해당 용지는 2018년 3월 19억5000만원에 구입한 것이다.

하지만 광산구가 용도변경 신청서를 접수받아 광주시에 '산단계획 심의'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절차마저 누락했다.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23조의 2에 따르면 이번 용도변경은 중대한 변경 사유에 해당돼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실시계획(지구단위 계획 포함)을 거쳐야 하지만,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이는 이번 용도변경 절차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광주시의 '산단계획심의위원회' 조건부 승인 결과와 광산구의 최종 승인·고시를 전면 무효

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해당 토지는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 등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산업단지 개발계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개발계획, 관리기본계획, 실시계획 등의 이행 여부는 심사과정에 필수적인 확인 사항"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용역비용으로만 1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관련 기간도 1년 가까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지원(상업)시설 면적 범위 초과를 놓고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의 산업단지개발 업무편람에 따르면 산업단지 면적에 대한 지원(상업)시설 구성비는 30만㎡ 이하는 6.5-8.0%, 30만㎡ 초과-50만㎡는 5.2-6.3%로 구성토록 돼 있다. 소촌농공산단의 총 면적은 32만 4000㎡로, 지원시설 면적이 최대 6.3%를 초과해선 안된다.

소촌농공산단의 경우 1999년 택배회사에서 7603㎡를 지원시설로 바꾸면서 지원시설 구성비는 6.2%로 사실상 최대치에 도달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적용한다면 추가 지원시설 용도 변경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광산구는 4500㎡를 추가 승인했고 이로 인해 지원시설 구성비도 7.6%로 경중 뒀었다.

이와 관련해 광산구는 "법적으로 지원시설 구성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었으나, 10여 년 전부터 LH에서 4-5%수준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도 5%대 안팎이긴 하지만, 강원도 등 일부 농공단지 중에선 지원시설 구성비가 8%대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이를 놓고 시민들 사이에선 "전직 광주시장 아들이 아닌 일반 시민이 동일한 내용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면, 승인이 가능했겠느냐"는 등의 푸념 섞인 말들이 나오고 있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손님 발길 끊긴 회센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 발표일인 4일, 점심 시간임에도 목포 북항의 회센터와 활어 판매장들이 손님이 없어 한산하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IAEA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국제기준 부합"

### 일본 정부에 종합보고서 전달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4일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해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이날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종합 보고서를 전달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전했다.

그는 "2년간에 걸쳐 평가를 했다"며 "적합성은 확실하다, 기술적 관점에서 신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보고서는 과학적으로 답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IAEA는 해양 방류 방침을 정한 일본의 요청을 받고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그동안 부문별 중간보고서를 냈으며 이날 포괄적인 평가를 담은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결정했고 IAEA가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IAEA는 그로시 사무총장의 기자회견 시점과 거의 동시에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는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도쿄전력이 계획하고 평가한 바와 같이 오염수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바다에 방류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능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 자료를 통해서도 "오늘 발표한 보고서는 우리의 검토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우리의 임무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가 검증된 사실과 과학에

입각해 방류 절차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안전성 검토는 방류 단계에서도 계속될 것이고 계속해서 현장에 상주할 것"이라며 "웹사이트를 통해 방류 시설에 대한 실시간 온라인 모니터링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IAEA의 이번 종합 보고서가 오염수 해양 방류에 상당한 명분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앞으로 대내외 설득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까지 일본에 체류한 뒤 오는 7~9일 2박3일 일정으로 한국도 방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정부, 올해 성장전망 1.6→1.4%로 낮췄다

정부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 취업자 증가분은 32만명으로 각각 예상했다.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1.6%)보다 0.2%포인트(p) 하향조정된 수치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주요 싱크탱크들의 전망치인 1.5%보다도 살짝 낮은 수치다. 다만 한국은행 전망치(1.4%)와는 같다.

성장률 전망치를 내린 주요 원인은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 부진이다.

올해 상반기 7월 수출은 1월부터 지난해까지 6개월 연속 작년 동월보다 감소했다. 무역수지 역시 5월까지 계속 적자를 기록하다가, 지난해에서야 흑자(11억3천만달러)로 전환했다.

글로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하고, 중국 리오피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서비스업에 집중되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탓이다.

부동산 경기 위축과 제조업 불황으로 인한 투자 감소도 경제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바우처 택시' 22개 시·군 확대 ▶2면

법원, 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공탁 '제동' ▶6면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D-100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The new EQS SUV

당신이 찾던 럭셔리 미래.  
This is for pioneers.

MERCEDES-EQ



###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완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민중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완 서비스 센터 BP 062)942-7200 / GR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EQE 350+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4.3(도상: 4.5, 고속도로: 4.1) 1회 충전거리(km): 471, 공차중량(kg): 2355, 배터리 용량(kWh): 88.8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사양 및 구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